



# 나는 왜 믿는가

믿음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낙희 신부 (편집자)

## 차례

|           |   |
|-----------|---|
| 머리말 ..... | 4 |
|-----------|---|

### **제 1 부.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을 믿을 이유들을 보여줍니다.....8**

|                                           |    |
|-------------------------------------------|----|
| 우리는 신뢰로 살아갑니다.....                        | 8  |
| 믿음은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 11 |
|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진실할까요?.....              | 14 |
| 모든 인간에게는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               | 17 |
| 도덕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영적 영혼을 드러냅니다.....         | 21 |
| 예술은 물질주의의 거짓을 보여줍니다.....                  | 27 |
|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들어냈다면, 하느님은 덜 요구했을 것입니다.... | 30 |
|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가 낳는 위험을 허락하셨습니다.....          | 33 |
| 악의 문제.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 37 |

### **제 2 부. 성경과 교회는 하느님을 믿을 이유들을 드러냅니다..... 41**

|                                      |    |
|--------------------------------------|----|
| 신약성경은 연구를 통해 가장 많이 확인된 고대의 책입니다..... | 41 |
| 누가 성경을 썼습니까?.....                    | 46 |
| 교회의 생존 자체가 신성하다는 증거입니다.....          | 49 |
| 가톨릭 교회는 하나된 유일한 교회입니다.....           | 51 |

|                                                   |           |
|---------------------------------------------------|-----------|
| 신자들이 거룩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 55        |
| 가톨릭은 보편적 교회입니다.....                               | 58        |
| 사도적 계승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 61        |
| <b>제 3 부. 창조는 하느님을 믿을 이유들을 드러냅니다.....</b>         | <b>64</b> |
|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 64        |
| 진보주의는 실수를 인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 67        |
| <b>제 4 부. 논리는 하느님을 믿을 이유들을 드러냅니다.....</b>         | <b>69</b> |
|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단순한 태도입니다.<br>..... | 69        |
| 자연 법칙은 목적을 따릅니다.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 72        |
| 범신론이란.....                                        | 75        |
| 음양(Yin Yang)이란.....                               | 80        |
| 무신론이 왜 생겼을까요? .....                               | 84        |
| 과학자는 모두 무신론자인가요?.....                             | 88        |

## 머리말

우리는 왜 하느님을 믿나요? 일부 신자들이 잘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삶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배우는 진리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자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기보다 알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직접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않고도 어떤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1,1).

때때로 모호하더라도, 삶에 대한 신앙의 설명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의 의미가 훨씬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선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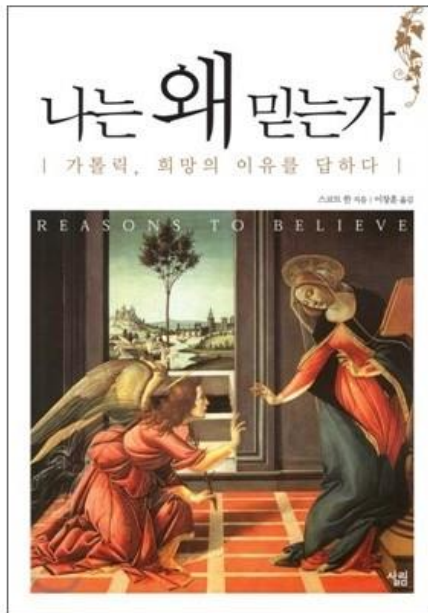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로마 1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믿은 후에는 우리가 믿는 진실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신앙인이 질문을 하면,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희망의 이유가 제시되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베드로의 첫째 서간 3,15).

오늘날 세계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합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나로 하여금 "내가 왜 믿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단지 부모님과 주변 환경이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믿는가?" 이것은 제 경험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의 경험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믿을 만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편집한 이유입니다. 신자들이 믿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라는 선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7 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의 내용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담긴 아이디어는 스콧 한 ("나는 왜 믿는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가톨릭 교회 교리서 등 여러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책 들에서 더 자세한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제 1 부.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을 믿을 이유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뢰로 살아갑니다.





신자가 아닌 일부 친구들은 종교에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 믿음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술적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편견, 후진성, 진보에 대한 저항과 동일시합니다.

실제로 믿음과 이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데 사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능력입니다. 모든 과학지식에도 암묵적인 가정이 전제되며, 과학자들의 동료공동체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는 다른 과학자가 제공한 실험 데이터와, 해당 과학자를 후원하는 기관, 그리고 해당 과학자가 학위나 자격증을 받는 기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자는 과학 저널의 권위와 신뢰성, 그리고 그들이 발표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학자는 물질 세계가 인지 파악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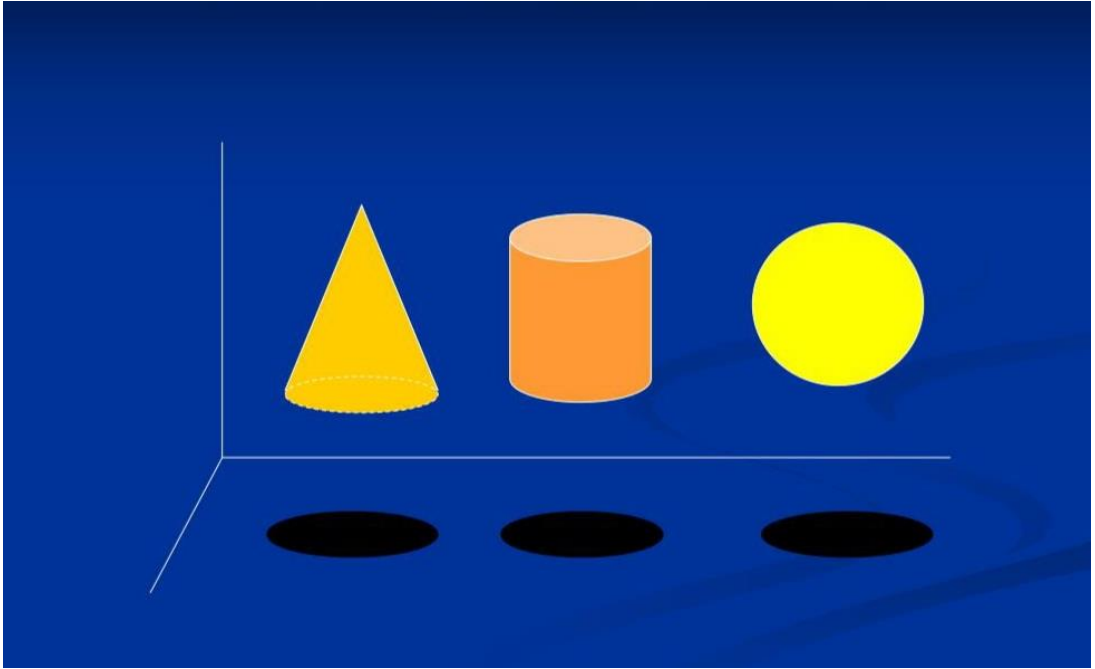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원칙은 입증할 수 없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진실을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고 믿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오늘 식당에서 먹을 음식이 건강하다고 믿고, 먼 나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등 여러 가지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믿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각사에서 과학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인 진리를 관조하기 위해 날아오르는 두 개의 날개와 같습니다.

믿음은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믿음은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질병 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 속 그림을 보면, 3 개의 기하학적 도형의 동일한 그림자가 2 차원 평면 위에 있습니다. 도형의 높이를 고려해야만, 세 가지 모두에 대한 진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은 쾌락을 향한 충동, 즉 쾌락에 대한 욕구에 복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행동하는 유일한 이유 또는 외거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후에,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인간은 권력과 정복 의지를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행동하는 유일한 이유이거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빅토르 프랑클(Viktor Frankl)은 인간도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적절하고 균형 잡힌 이유가 있다면 인간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굴복합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직업적인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의도를 정화하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 덕분에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과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덕분에 질병과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목은 평면적이고 땅에 고정돼 있고 2 차원적입니다. 초자연적 삶을 살 때, 그대는 하느님으로부터 3 차원적인 안목을 받을 것입니다. 높이, 그것과 함께 원근과 무게와 부피를 말입니다." (성호세마리아, 길 279).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에도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선로에서 벗어나려는 ~~싫어하는~~ 기차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잘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진실할까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걸까요, 계획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한 분이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그분께서는 인간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가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느님을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약점, 그 필요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필요성은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종교는 세상의 기원과 운명, 삶의 의미, 악, 불멸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예술과 단절하고 의도적으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18 세기까지 모든 문화에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명이 고유의

문화, 예술, 음악, 의식, 축제를 만들어낸 것처럼 종교 역시 인간 본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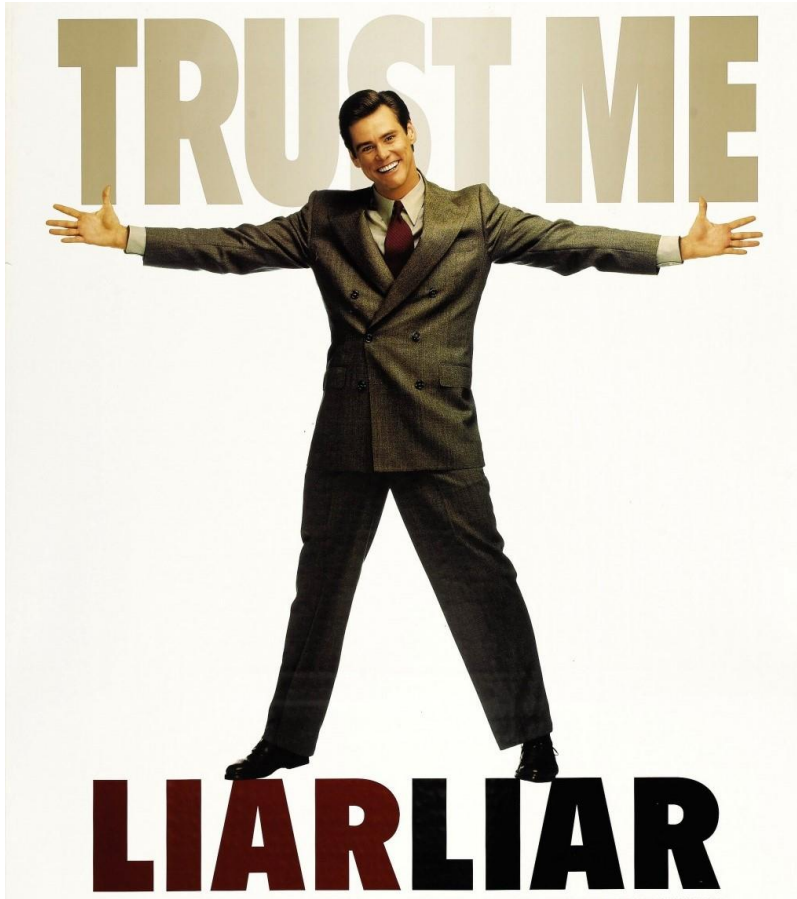
이 사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진실한가요?

특정 종교가 인간의 소망에 더 잘 응답하거나 하느님과 창조의 의미를 더 잘 알게 해주었을 때, 더욱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타락한 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연결되지 않은 종교는 편협성을 띄거나 전쟁으로 이어지며 약자들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가르쳐주는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덕적 감각은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도덕적인 삶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스스로 모순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모든 인간에게 유효한 절대적인 도덕적 계율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계율입니다.

또는 그들은 "자신의 도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도덕적 처방입니다! 도덕성 자체를 거부하면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도덕성, 즉 일련의 처방을 강요하는 또 다른 도덕성을 수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에 대한 선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도덕적 감각은 도덕이 존재하고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마 일부 남편은 아내를 속입니다. 또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세금 신고서를 위조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태아를 파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일부는 양심을 비틀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에게는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를 겪으면 모든 인간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만적인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음을 저지른 사람조차도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탈세자는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낙태 의사가 태아를 공격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러한 규범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감각을 보여 줍니다. 자신은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정의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도망치거나 조국을 배신한 사람을 존경하는 나라에서는  
도덕성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한 명 또는 여러 명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어떤 행동은 옳고 다른 행동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본성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본능도 아니고 교육의  
결과도 아닙니다.

도덕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영적 영혼을 드러냅니다.



도덕적 규칙이란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덕적 규칙은 이 기계가 움직이다가 고장 나지 않게 하려고, 또 기계에 무리가 생기거나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는 기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들이 각기 따로 놀거나 충돌함으로써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로서, 속임수를 쓰거나 횡포를 부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의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한 개인을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각기 다른 기능과 욕구 등)이 각기 따로 놀거나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을 편대를 지어 항해하는 선단에 비유하면 이 점이 더 명확히 이해될 것입니다.

항해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항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각각의 배들은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양호한 엔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항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배들이 서로 충돌을 거듭한다면 머지않아 항해에 적합한 조건을 상실할 것입니다.

반면에 각 배의 조타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배들은 충돌을 면할 도리가 없겠지요.

또는 인류를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에 비유해도 좋겠습니다. 연주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각 연주자들의

악기가 잘 조율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악기는 다른 악기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순간에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단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 악단이 연주하고자 하는 곡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악기들이 전부 잘 조율되어 있고 정확한 순간에 소리를 냈다 해도 춤곡을 연주해야 할 상황에서 장송곡을 연주했다면, 그 연주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선단이 아무리 순조롭게 항해했다 해도 뉴욕에 가야 할 배들이 캘커타에 도착했다면, 그 항해는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은 세 가지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은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정돈 또는 조화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선단이 가야 할 경로는 무엇인가, 악단 지휘자가 연주하려는 곡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인들이 거의 언제나 첫 번째 사항만 생각할 뿐,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잊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대개 국가와 계층과 개인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공정하게 처신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사항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오로지 첫 번째 사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옆 배와 충돌하지만 않으면 자기 배의 내부 상태야 어떻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실 도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사항인 사회적 관계부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한 것들은 식별하기도 쉬울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매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지요. 전쟁과 가난과 부정부패와 거짓말과 비열한 것들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첫 번째 사항에 관한 한,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간에 정직하며 친절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대 거의 모든 인간들이 동의해 온(이론적으로는) 바이니까요.

그러나 첫 번째 사항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 해도, 도덕에 대한 생각이 이 지점에서 멈추고 만다면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도덕의 두 번째 사항—각 인간의 내면을 정돈하는 일—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사실상 조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배들이 낡은 데다가 결함투성이라면, 아무리 충돌을 피하는 조종법을 가르쳐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사실상 우리의 탐욕과 비겁함과 못된 성질과 자만심 때문에 규칙을 지킬 수 없다면, 아무리 사회적인 행동을 위한 규칙을 정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사회, 경제제도 개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바는, 각 개인의 용기와 이타심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아무리 사회적, 경제적 개선책을 찾더라도 다 뜯구름 잡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행되는 특정한 종류의 부정부패나 횡포를 없애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리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새로운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법으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사항, 즉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도덕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술은 물질주의의 거짓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의 적입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만지고, 세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도 사랑,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열망, 잘하는 일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의, 공정성, 자유, 연민, 연대 등과 같은 도덕적 원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추상적이거나 비

물질적인 아이디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사실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이상은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또는 정당한 대의를 위해, 또는 동료 시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또한, 음악과 예술은 우리를 감각적인 것에서 추상적이거나 비 물질적인 것으로 이동시킵니다. 모차르트의 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수천 가지 멜로디 변주가 무언가를 의미하며,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연상시키고 표현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교향곡을 수학과 소리의 파장에 기초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학과 색채의 파장에 근거해서만 아름다운 반 고흐의 그림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 설명이 모든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정도로 불충분합니다.

음악과 예술은 우리를 감각적인 것에서 추상적이고 비 물질적인 것으로 인도합니다. 예술은 인간의 영성을 보여주며,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인간에게 영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의, 공정성, 자유, 연민, 연대와 같은 비 물질적인 도덕적 원칙은 한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믿음은 비 물질적인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들어냈다면, 하느님은 덜 요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지대나 버팀목, 위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을 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하느님은 고통이나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비이성적인 욕망을 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특히 권력자들이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복종시키는 데 유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개념을 발명했다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현존하시므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도 그분에게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즉시 아실 것입니다.

참 하느님은 무한히 강력하고 지혜로우시므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무한히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느님은 전적으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 완벽하게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잘 아시는지에 따라 나를 심판하십니다.

게다가 하느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항상 같은 가치를 지키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선하거나 객관적으로 악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만약 물질적인 것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고, 우리의 행동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선도 악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입장은 충분한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정치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 태도는 역사상 최악의 전쟁과 대량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종교를 가진 왕국 간의 전쟁은 비참한 일입니다. 하지만 20 세기의 전쟁은 종교적 이유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으로 인한 전쟁과 학살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가 낡는 위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나올 질문이 있지요. 이런 현 상태는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일치한다면, 하느님은 그야말로 이상한 분이 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절대적 권세를 가진 존재의 뜻에 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권위 있는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한 가지 일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에 부합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긋날 수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오늘 밤부터는 너희 공부방을 정리해 주지 않을 거야. 이젠 너희도 스스로 방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지각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공부방에 가 보니 곰 인형이며 잉크며 문법책이 온통 어질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방을 잘 정리하길 더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아이들에게 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자유를 준 것 역시 어머니의 뜻입니다.

이런 일은 군대나 회사나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뜻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졌으면서도 그릇 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존재를 상상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선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입니다. 악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피조물들의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느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서, 거기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인간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의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의 지류가 그 원천보다 높이 흐를 수 없듯이, 하느님은 그르고 여러분이 옳은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반대하여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을 논쟁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힘에 반대하여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걸터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만약 하느님은 피조물들이 진짜 선을 행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세상,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악의 문제.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최근의 역사는 하느님이 가장 많이 사라진 역사적 시대입니다. 무신론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전쟁, 대량 학살로 가득 찬 역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은 부분적으로 하느님의 건망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비난합니다. 하느님이 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면 왜 악이 존재할까요?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면 그의 창조물도 그 완전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전능하다면 악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부정하면 악의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흰개미를 없애기 위해 목조 주택에 불을 지르거나 코피를 멈추기 위해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악의 문제는 이해하기 어렵고 죽음 이후의 삶, 심판, 보상 및 처벌을 믿는 경우에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물리적 악과 도덕적 악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육체적 악은 질병, 실명, 고통, 자연재해 또는 죽음과 같이 누구의 잘못도 없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모든 악은 선한 것을 박탈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질병은 건강의 부재, 실명은 시력의 부재, 죽음은

생명의 박탈 등입니다. 사후 세계를 믿는다면 이생에서 박탈당하는 것이 사후 세계에서 받는 선보다 덜 악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도덕적 악은 누군가가 저지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유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불의입니다. 도덕적 악은 도덕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간음은 정절의 결여이고, 거짓말은 진실의 부재이며,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악은 무언가의 결핍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악의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받으며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자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그 고난은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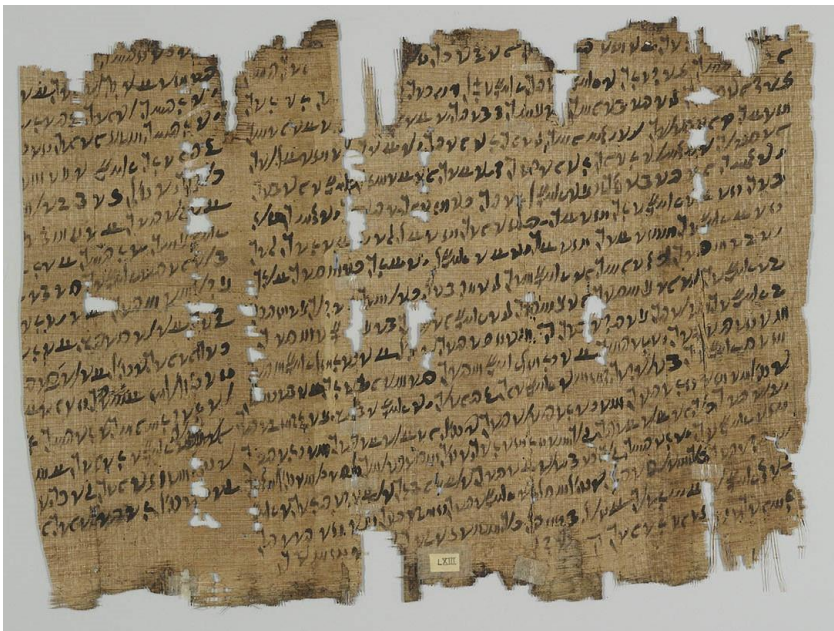
또한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악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의 행복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위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정의가 없다고 합니까?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의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 제 2 부. 성경과 교회는 하느님을 믿을 이유들을 드러냅니다.

신약성경은 연구를 통해 가장 많이 확인된 고대의 책입니다.



복음서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전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책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A, 해당 책이 당시 작성된 시기의 저자가 저술한 경우, 즉 진본입니다.

B, 책의 저자가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사건을 알고 있고 독자를 오도하고 싶지 않은 경우, 즉 진실한 경우입니다.

C, 책을 크게 변경하지 않은 상태, 즉 요약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된 경우입니다.

복음서는 사실이고 진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동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의 직계 제자만이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0 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 민족이 그곳에서 추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대의 작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잘 묘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 지형적, 문화적 디테일이 풍부하게 등장하는 설명은 다른 사람들이 직접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설명은 이후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처음부터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수많은 사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면 충분합니다. 오늘날 6,000 개 이상의 그리스어 사본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번역자들이 사용한 그리스어 원문을 참조하여 다양한 언어(라틴어,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등)로 번역된 아주 오래된 사본도 약 40,000 여 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 년 내내 대부분의 복음서가 수록된 1,500 권의 미사 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고대 작가들의 작품에서 복음서를 인용한 무수한 인용문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 또한 원본 복음을 참조합니다. 복음서에 대한 이 모든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언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위대한 고전 작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를 비교해 보면, 이 작품들의 가장 오래된 현존 사본은 저자의 시대보다 훨씬 더 늦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질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그가 처음 글을 쓴 지 약 500 년이 지난 5 세기의 것입니다.

호라티우스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보다 900 여 년이 지난 8 세기 작품입니다.

플라톤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이 나온 지 약 1400 년 후인 9 세기의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이 나온 지 거의 1100 년 후인 10 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호머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이 나온 지 약 1900 년 후인 11 세기 작품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원본과 매우 가까운 연대의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코덱스 알렉산드리누스는 원본보다 약 300 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코덱스 바티칸 사본과 시나이 사본은 원본보다 200 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는 원본보다 150 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보드머 파피루스는 원본보다 100 년 후입니다. Rylands 파피루스는 원본보다 30 년 뒤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수만 개의 사본이 매우 먼 곳에서 매우 먼 훗날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원본에서 변경된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본 간의 중복 수준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887년부터 1947년 사이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2~4세기 사이에 쓰여진 수백 개의 파피루스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파피루스는 이전에 소장되어 있던 사본과도 일치합니다.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모든 버전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복음서가 수 세기에 걸쳐 보존되어 온 신실함과 그 진위와 무결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신약성경은 고대의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도 가장 풍부하게 기록된 최고의 책입니다.

복음서는 기적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게 됩니다.

누가 성경을 썼습니까?



비신자와 대화할 때는 상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공통의 언어이자 적절한 만남과 이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중 누가 먼저 왔나요? 성경은 교회를 전제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는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성경은 세워야 할 교회를 위한 사용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던 교회를 위한 사용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신약성경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신약성경은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주로 명확한 규칙, 행동 패턴, 신앙적 관행, 자체적인 권위 구조와 의사 결정 절차를 갖춘 이미 잘 구성된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을 4~5 세기까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을 구성하는 책들의 목록인 완전한 기독교 '정경'은 서기 367 년 성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인증되었지만, 380 년 로마 공의회와 히포 및 카르타고 공의회(서기 393, 397, 417 년)에서 비준될 때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서의 기록은 이미 초기 세기에 존재했지만, 명확하게 정의된 책 모음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생겨나고 참된 교회가 그것들을 보존하고 확인하고 전승했습니다. 성경을 정경화한 교회는 비록 몇 세대 전이지만, 그 문헌을 생성한 교회와 동일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텍스트를 수집하고 성서를 만든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는 성령의 영감으로 어떤 책이 성스럽고 어떤 책이 성스럽지 않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전례 안에서 성서를 읽는 회중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교회의 생존 자체가 신성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생존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역사상 온갖 사건을 겪은 후에도 지속된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성령 덕분에, 교회는 학교, 대학, 병원, 묘지 등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기관들은 시민 사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신뢰성이 입증된 메신저의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현존으로 교회가 자선을 실천하고 인류의 유익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또한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에도 진리를 대변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해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 의해 유발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때로는 성직자들 스스로 최악의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회복해 왔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인간의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교회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된 유일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4 세기에 교부들은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특징, 즉 하나됨, 거룩함,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식별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싶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 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에페소 4,5)'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 차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묘사하며, 그 완전성과 하나됨이 예수님 자신의 몸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이 많고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그 일치를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1 코린토 12,13).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순전히 영적인 실체라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오로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영혼을 부여받은 존재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가 순전히 영적인 교회를 묘사하고 싶었다면 그리스도의 “영혼”이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교회의 일치를 향한 깊은 열망을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이 “한 목자아래 한 양 떼가 될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0:16).

예수님이나 바오로 모두 전체 교회의 일치를 염두에 두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오로는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1 코린토 1,10)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모든 인종, 국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전 세계와 시대를 초월하여 분열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신앙을 고백해 온 유일한 그리스도교입니다.

'오직 성경' 원칙을 고수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개신교인들은 수만 개의 서로 다른 교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개신교들은—성사, 은총, 도덕, 전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2 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치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안에 불평하는, 반항하는, 반대하는 사람 또는 죄인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사도행전 5:1-11),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사도행전 8:9-24)과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한 몸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합된 일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거룩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신약성경은 종종 교회에 대한 거룩함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선택된 겨레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1 베드로 2,9).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페소 5:31-32). 교회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2 코린도 6,16).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의로움이나 선한 행동과 동일시하지만, 두 가지 특성이 영혼 안에 공존해야 하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성도, 순교자, 동정녀 등의 삶과 죽음에서 재현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소유하고 분배합니다. 교회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2 베드로 1,4).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 즉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순결과 독신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나 성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더러운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신은 가치가 있는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제단에서 무가치한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과 성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일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이 거룩함의 표시가 여전히 분명한 교회는 단 하나,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독신과 거룩함은 동일하지 않지만, 전자는 후자의 중요한 표시이며 성경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보편적 교회입니다.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성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직접 말씀하신 교회의 특성입니다. (마태오 28:18-20)

예수님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걸맞은 권위를 부여하셨고, 따라서 그 권위를 언제 어디서나 확장하셨습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지리적인 지역이나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강조하고자 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언어나 방언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은 결코 교회의 일치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선, 사도들의 가르침, 떡을 떼는 행위, 기도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 42).

교부들은 보통 말라기의 예언을 거룩한 미사에 적용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다.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에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말라키서 1,11).

이 표현은 디다케라는 문헌을 포함하여 가장 초기에 알려진 성체성사의 기도문에도 등장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역사에서도 모든 곳에서 거룩한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로마는 베드로가 교회를 다스린 도시이자 그가 죽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톨릭과 로마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는 사도행전 1 장 20 절의 명령, 즉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어 다른 지역 교회(예: 성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권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지중해에 흩어져 있던 교회 교부들에게 로마는 보편 교회의 일치를 보장하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인격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도적 계승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도성은 교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사도적입니다. 첫째, 사도들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보존하고, 그 가르침과 전통의 인도를 계속 받고 있으며, 합법적인 계승을 통해 사도들의 완전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성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입니다. 성 바오로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에페소 2,19-20)라고 썼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는 족보, 즉 출처, 혈통, 권위의 기원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은 유다의 직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후계자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시편 108 편 8 절에서 인용한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사도적 계승은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유지됩니다. 사도성은 다른 세 가지 특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집단보다 가톨릭 교회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안에서 다른 교회를 추론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교회를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초대 교회의 해석자들, 즉 사도직을 계승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초대 사도들에게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루카 10,16).

예수님의 신성과 하느님의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신앙의 초자연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입니다.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단순히 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이상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하느님의 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성전이자 우리의 양식입니다.

## 제 3 부. 창조는 하느님을 믿을 이유들을 드러냅니다.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다음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해변을 걷다가 햇볕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구부려서 그것을 집어 올립니다. 한쪽이 유리로 덮여 있는 작은 원형 금속 물체입니다.

그리고 똑딱 소리가 나고 유리 아래 톱니바퀴, 기어, 스프링, 나사 및 무언가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자국이 보입니다.

모든 조각은 정밀하고 조심스럽게 배치되어 하나의 통합된 몸체를 형성합니다. 이 물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어느 시계 제작자가 만들었고, 주인은 해변에서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계가 우연히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파도가 해안에 세게 부딪히면서 우연히 생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파도는 모래와 조개껍질을 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먼지가 바람의 작용에 의해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런 과정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네, 상상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인이 이 장치를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 장인은 목적과 선입견을 염두에 두고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시계는 시계

제작자의 사전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 시계 제작자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증명은, 운동, 목적론, 인과관계의 개념에 기초합니다.

진보주의는 실수를 인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진보와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진보는 실수를 인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셈이지요.

이 지점에서 수학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못된 방식으로 계산을 시작했다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더 신속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가 발전하려면 하느님 없이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세상의 상태를 보면 인정하겠지만, 하느님을 무시해서 인류는 명백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정치, 경제체제는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이 기독교보다 더 좋은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 제 4 부. 논리는 하느님을 믿을 이유들을 드러냅니다.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단순한 태도입니다.



더 많이 연구할수록 우주는 우연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주의 창조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도 건널목에 와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객차가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백 대의 객차가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차가 이미 움직이면서 건널목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엔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에 엔진이 있다고 추론해야 합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무언가 기차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어렵고 많은 믿음이 필요한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한한 일련의 객차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차의 움직임을 설명할 필요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무한히 미루는 것일 뿐, 객차들을 움직이는 궁극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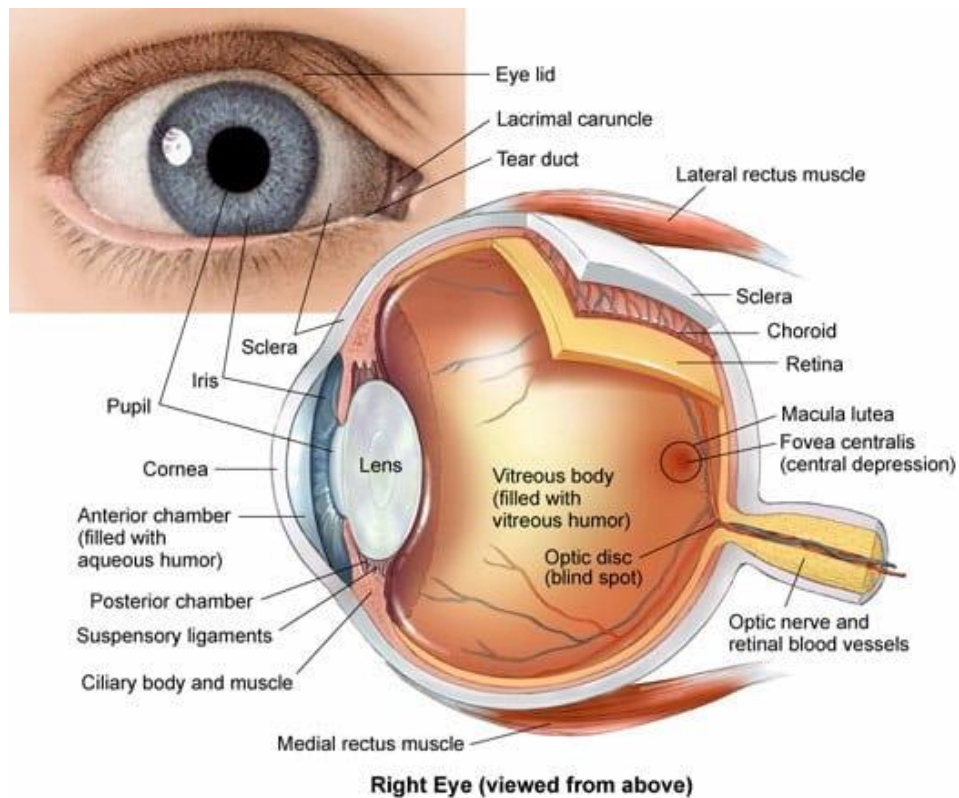
우리는 하느님이 존재하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연구가 발전할수록 각 분야에는 합리성과 논리가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합리성과 논리가 없다면, 모든 분야의 연구는 제멋대로의 무작위적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만든 이성적인 마음을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연구할수록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논리에 따른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믿음 안에는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습니다". (블라스 파스칼, 생각들).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물론 그러한 선택은 선로에서 내리고 탈선하고 싶은 기차처럼, 자유를 후회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탈선하면 다시는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법칙은 목적을 따릅니다. 그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만유인력의 법칙, 열역학 법칙과 같은 물리적인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칙은 질서정연하게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는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진화론에서도 자연은 깨지지 않는 법칙을 준수하며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 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연은 의도(적어도 생존을 위한 의도), 질서, 기준, 목적을 의미하는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능형 디자인, 즉 프로젝트를 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다면 반드시 건축가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눈은 망막, 각막, 수정체, 유리체, 방수로 구성된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한 우연적 과정의 결과일 수 없습니다. 눈은 특정한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보아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눈이 보이기 전, 가상의 초기 단계에서 눈이 완성되기 전의 물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눈은 볼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눈은 보기 위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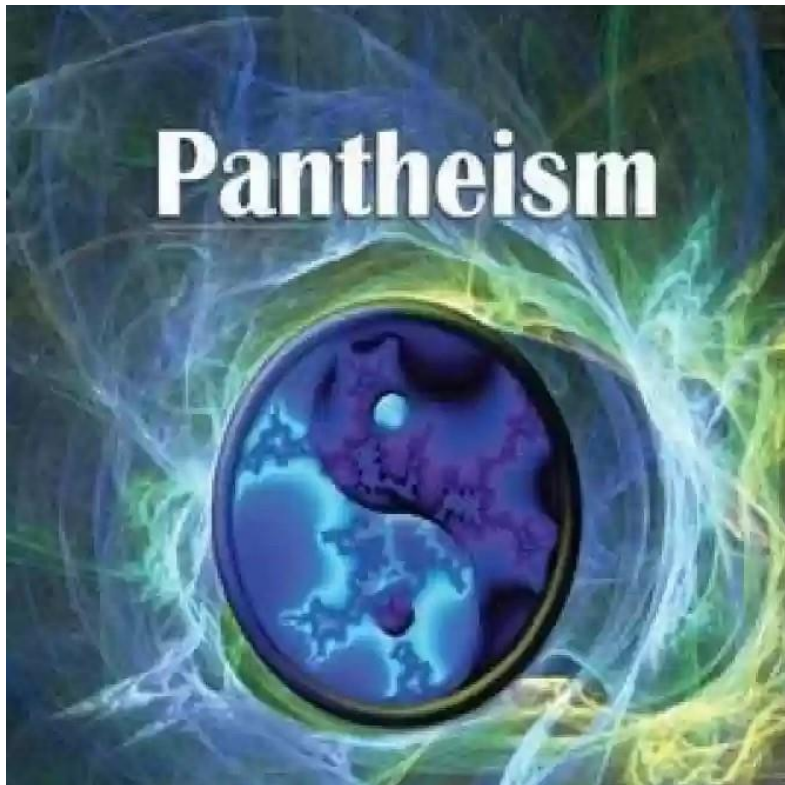
비 물질적인 에너지의 폭발(대폭발, 빅뱅)부터, 인간의 뇌와 같은 복잡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에너지의 진화에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습니다. 입자와 세포부터, 태양계와 은하계까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적 과학은 우주가 질서와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관찰, 측정,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창조는 디자인과 프로젝트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질서 있는 우주는 지적인 창조자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 지적인 창조자를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증명은 운동, 목적론, 인과관계의 개념에 기초합니다.

범신론이란.



범신론? 창조의 외부에 존재하는 누군가에 의해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은 선도 악도 아니며 그저 자연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인류는 가장 먼저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다수와 믿지 않는 소수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하느님을 믿는가에 따라 한 번 더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다른 두 입장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하느님을 선악의 구분 너머에 있는 존재로 보는 입장입니다. 하느님을 선악의 구분 너머의 존재로 보는 관점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범신론자는 인간이 제 몸을 움직이듯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주 자체를 하느님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느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주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느님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듯이 하느님이 우주를 창안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화가와 그림은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이 파괴되어도 화가는 죽지 않습니다. “화가가 그림 속에 자신을 쏟아 부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림의 아름다움과 감흥이 모두 화가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가의 기교는 원래 그의 머리에 있는 것으로서 간혹 “그의 손에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그 그림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주 진지하게 구별하지 않는 한,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느님의 일부라고 말하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것들은 정말 악하고 하느님은 정말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지요. 여러분은 하느님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세상의 어떤 것들은 그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범신론자는 암이나 빈민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관점에서 보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 역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텐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응수할 것입니다. “헛소리 그만 해요.” 그리스도교는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공간과 시간, 열과 추위, 색깔과 맛, 모든 식물과 동물은 마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 내듯이 하느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내신’ 것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버렸으며,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을 것을 명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느님이 만든 세상이 왜 잘못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하다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저는 정의나 불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굽은 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 저는 이 우주를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축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수중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축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존재해야 선과 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진 생물도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경우에 어둡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의감은 창조된 우주와 구별되는 공의로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범신론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음양(Yin Yang)이란.



음양(Yin Yang)의 매력은 악이 우리 밖에 있다는,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악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음양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아니라, 원칙은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음양에 따르면 그 두개의 힘 내지는 두개의 영, 또는 두개의 신—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 두개의 힘은 모두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느님으로 자처할 수 있는 권리를 더 가진 것도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미움과 잔인성을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를 좋아하는데, 두 힘 모두 자기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는 '선한 힘'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악한 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단순히 어쩌다 보니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 사과주보다 맥주를 더 좋아하듯이—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두 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인간들이 현재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두 힘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를 선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상 틀린, 잘못된 생각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어쩌다 보니 선한 힘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면, 선과 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선이란 '어쩌다 보니 그 순간에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좋아해야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하다'는 것이 단지 별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편에 합세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 때의 선은 선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고 부르는 데에는, 두 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그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옳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두 힘을 제외한 제 3의 존재, 즉 두 힘 중에 하나는 거기에 부합되지만 다른 하나는 부합되지 않는 어떤 법칙 내지는 기준, 또는 규칙을 우주에 끌어들이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그 기준에 따라 두 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준 내지 그 기준을 만든 '존재'는 그 두 힘보다 더 오래 전부터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며, 그야말로 진정한 하느님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는 진정한 궁극적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원론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신론이 왜 생겼을까요?



첫째. 기독교의 위대한 공헌 중 하나는 Person 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즉 지능과 의지를 부여 받습니다. (보에티우스, 6 세기). 그 결과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아마 그 존엄성을 잘 못 이해해서, 14 세기부터 하느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데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6 세기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계층 구조, 신권, 성사 및 신앙의 교리적 진리를 무시하고 사람과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종교는 더욱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며 덜 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철학은 개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데카르트, 칸트, 헤겔은 개인의 자율성 (지식, 도덕 및 자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8 세기와 19 세기에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유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식민지들은 군주국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선진국들은 민주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일부 사상가들은 신에 대한 관념이 사라져야만 인간이 절대적 자유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사람이 인간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신을 인간으로 인식하려면 모든 사회적 조건을 피하고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르트르, 시몬 드 보부아르, 데리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간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부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과학, 경제, 정치 등이 세속화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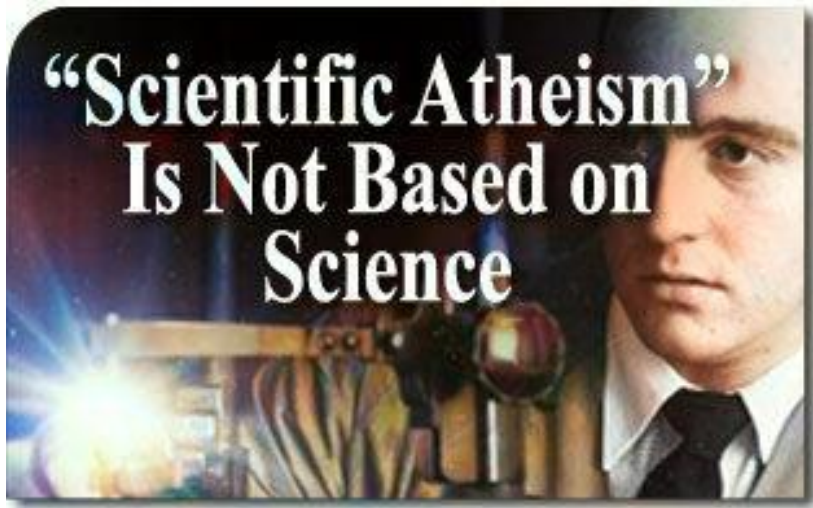
모든 사람이 종교를 사회적 관습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17 세기 이후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창조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신의 무대가 아닙니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수동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자연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이제 인간이 지배합니다. 창조는 연구의 대상이지 과거처럼 영적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에는 수수께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신자와 사제의 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주로 유럽에서 증가되지만 무신론자의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느님의 속성인 사랑과 선함, 아름다움과 진실을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존재하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과학자는 모두 무신론자인가요?



과학적 무신론(Richard Dawkins, Stephen Hawking)에서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과학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무신론은 과학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무신론은 신에 대한 개념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 하느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자들은 흑사병에서 해방되기를, 날씨가 좋아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반대로 과학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존재는 매우 정확하고 유일한 조건에 가까운 산물입니다.

스티븐 호킹과 레너드 모디노우의 저서 "그랜드 디자인"은 우리 우주가 여러 개로 존재할 수 있는 우주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의 기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화론은 종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Dawkins 와 Patricia Churchland 는 인간은 동물의 또 다른 종에 불과하고 인간의 지능, 자유 및 자의식은 화학 반응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에 의거하여 인간은 단지 하나의 다른 동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학을 만드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틀어 과학이 종교를 미신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현실의 모든 수준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창작. 모차르트의 음악을 음파로 분해하거나, 반 고흐의 그림물감의 화학적 구성을 알아내거나, 성 베드로 대성당의 하중 분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음악, 그림, 건축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해줄까요?

과학적 무신론은 환원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과학만이 세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완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기원이나 인간 의식의 기원에 관한 일부 이론은 공상 과학 소설입니다. 이는 과학적 증거라 기보다는

이론이나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과학적인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현실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해도 왜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고 지능적인 인간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게 된다면, 그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A priori" 이전에 내가 부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합니다. 그 태도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 무신론은 영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며, 과학이 무신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학적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즉,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과학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종교적이지도 무신론적이지도 않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데이터만 작업합니다.

결국 과학적 무신론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단지 환상이나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신론은 종교를 반박하는 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유롭고 지능적인 인간은 과학을 실험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여전히 종교적입니다.

17 세기에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바로잡고  
유지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 과학에 찬성하는 유명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e pur si muove!” (“그래도 움직인다!”).

자, 이제 종교에 관해서도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e pur si  
muove!”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